

<보도일시: 2023. 7. 21.(금) 19:00 이후>

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연설문

존경하는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는 최근 한국 정부가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라는 점에서
인도에서 열리는 오늘 G20 고용노동 장관회의가
더욱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부펜더 야다브(Bhupender Yadav) 장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각 국 장관님과 국제기구 관계자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회의의 세 가지 핵심 주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현재 추진 중인 노동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직업능력 격차 해소입니다.
디지털·저탄소 혁명으로
전 세계의 산업구조가 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능력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노동시장 약자가
직업능력에 관한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미래세대인 청년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청년들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기업이 직접 설계한
실무 중심 훈련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생애경력 설계,
여성의 모성 보호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장애인 특화 디지털 훈련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더 많은 국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Gig)·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입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한국 정부는 이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고용 불안정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도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향후 자율적 공제회 등을 통해
플랫폼 종사자를 다각적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회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입니다.

‘사회보장 제도’는
취약계층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마지막 보루이지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COVID-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라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는 등
사회보험 재정의 탄력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장관님과 국제기구 참석자 여러분,
한국 정부는 노동 개혁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 개혁의 핵심은 ‘노사법치’ 위에서
대화과 타협을 통해
약자가 두렵게 보호되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는 이번 G20 고용노동 장관회의의 핵심 주제인
‘약자 보호 및 지속가능성’ 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법치의 기반을 확고히 정립하겠습니다.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불법, 부당한 관행에
엄정 대응하면서
노동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중구조 등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입니다.
원·하청 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면
정부가 임금·복지 격차 완화, 숙련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지원하는
상생모델을 만들고, 이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규제 혁신, 재정지원 등을 통해
원·하청, 노·사 간 자율협력을 유도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임금체제도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동규범의 현대화 및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사의 선택권 확대와 건강권 보호를 바탕으로
실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강화하면서
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 등의 보호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입니다.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국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계기로
노·사가 스스로 안전의 주체가 되어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장관님과 국제기구 참석자 여러분,
노동 개혁과 고용노사관계 개선은
기존의 낡은 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청년을 위한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 세대가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물려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G20 고용노동 장관회의의
핵심 주제와 같이
약자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G20 고용노동 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계기로
각국의 고용노동 정책이 보다 발전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